

## 목일신 동시의 혁명적 이미지 고찰

정 다 운\*

〈차 례〉

1. 머리말 : 동시와 혁명적 이미지
2. 자연물의 반복적 재현과 ‘아동-동일자’ 이미지 생산
3. 일상의 명량성 묘사와 아동의 내부 규칙 확산
4. 맺음말

### 1. 머리말 : 동시와 혁명적 이미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혁명적 이미지가 일상에 스며드는 과정을 반복하며 견고해진다. 역사적 공간 혹은 기념비적 시간이라고 지칭된 특별한 사건들도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감흥을 불러일으키지 않은 보편적인 일상이 된다. 과거에 혁명이라 불리었던 사건들이 일상에 축적되면서 사회를 보다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견고해진 일상 속에서 우리는 일련의 공통된 가치관들을 생성하고 학습하게 된다.

혁명이란 기존에 공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사고와 제도를 일순간 전복시키는 힘이다. 혁명의 힘은 단순히 이전의 사회 질서를 전복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새롭게 제시된 사회적 규칙을 일상화시키는 힘으로 이어지게 된다. 근대 이후 발견된 아동<sup>1)</sup>은 분명 이전의 시대에

\*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는 없었던 혁명적 존재이다. 이러한 혁명적 존재를 일상화시키는 데에는 일정한 도구가 필요했는데, 아동문학에서 발현된 혁명의 힘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알랭 바디우의 “동일자의 생산은 그 자체가 동일자의 법칙 내부에 있다”는 언어로 다시 설명되어질 수 있다.<sup>2)</sup> 그에 따르면 보편적인 사

- 1) ‘아동’은 사회에 의하여 구성되고 생산되었다. 근대의 아동기에 대한 인식의 변천은 아동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발견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근대의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따라 형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필립 아리에스는 『아동의 발견』에서 실제의 아동으로부터 추출한 것이라기보다 실제의 아동에 대한 새로운 관념의 아동이 구축되었다고 보는 편이 더욱 분명하다고 역설한다.(필립 아리에스, 『아동의 탄생』, 문지영 역, 새물결, 2003), 또한, 가라타니 고진은 아동이 근대 국가 제도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근대 의무교육이 아동들을 모아놓으면서, 종래의 생산관계·여러계급·공동체에 구체적으로 속해 있었던 아이들을 추상적이고 균질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고, 여기에는 강력한 이데올로기 담론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한다.(가라타니 고진, 『아동의 발견』,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박유하 역, 도서출판b, 2004.)
- 2) 알랭 바디우가 그의 저서 『사도바울』을 통하여 성경 속 인물인 사도바울을 누구보다도 뛰어난 혁명가라고 이야기한다. 그동안 단순한 성경 속 인물로 평가되어 왔던 바울의 새로운 가치를 정리하고 있는 것이다. 바디우에 따르면, 바울은 자신의 선교활동을 통하여 ‘그리스도’라는 특별한 존재를 인간 보편적 삶의 가치를 지닌 존재로 둔갑시키는 데 매우 능한 인물이다. 바울은 기존의 서양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즉, 그리스담론의 헬레니즘과 유대담론의 율법 중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리스도교 담론’을 이 시대의 새로운 사건으로 선언한다. 이러한 선언은 그 논리성을 심판받기 이전의 엄청난 폭력으로 충분히 비난받을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혁명적 선언은 종교적 탄압의 역사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분명 ‘그리스도교 담론’을 서양의 가장 보편적 담론의 중심으로 그 위치를 옮겨 놓는다. 그리하여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왜 가치있는 것이고, 보편적인 것인지에 대한 바울의 혁명적인 논리·없이 서양의 문화를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 다시 말해, 서양의 문화를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떠나서는 설명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이는 바울이 만든 특별하고도 새로운 사건적 사유체계가, 보편적인 일반성을 지닌 사유체계로 둔갑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알랭 바디우, 『사도바울·‘제국’에 맞서는 보편주의 윤리를 찾아서』, 현성환 역, 새물결, 2008.)

유는 타자가 동일자에 의해 포섭되는 결과 속에서 산출된다. 이는 본인의 정체성을 보편성에서 출발시키고, 그 안에서 진리치를 규정짓고자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동일자의 생산은 소수의 특질을 가지고 있는 개개인이 자신의 특이성을 버리고, 보편적 틀 안으로 포섭될 때에 극대화되는 것이다. 이 때 동일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주체적으로 규정지었다고 믿게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인위적인 과정이 아닌, 보편적인 진리과정의 탐색이었다고 합리화시키게 된다. 이처럼 특별한 사건을 보편적인 일상화로 만드는 과정은 혁명적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아동문학과 혁명적 이미지가 겹쳐지는 지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바디우의 사유를 빌려온다면, 혁명은 단순히 국가 사회 체제 전복의 성공여부만으로는 정의할 수 없다. 오히려 혁명의 힘은 새로운 가치관을 사회 속에 침투시키고, 이를 보편적 가치관으로 바꾸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혁명의 힘을 염두한다면, 근대의 기획 산물로 구성된 아동문학 역시 혁명적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사실 아동문학이 근대적 기획의 결과물이라는 논의는 이제 매우 보편적 인식으로 받아들여진다. 근대 이후 미성숙한 ‘아동’이 발견되었고, 이러한 아동들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위하여 ‘아동문학’이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되었다는 논의 역시 더 이상 새로운 것이 되지 못한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기존의 피상적으로 설명되어왔던 아동문학들이 사회체제의 도구로 어떻게 활용되었고,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 매우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아동문학은 문학을 통해 특별한 ‘무엇’을 일반적인 혹은 보편적인 것으로 둔갑시킨다. 특히, 아동은 동시를 읽으며, 또 동요를 부르며 혁명적 이미지가 보편적 일상으로 둔갑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아동은 이렇게 습득

한 사유를 주체적으로 획득한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믿게 된다. 따라서 동시 역시 혁명적 이미지가 구현되고 있는 근대의 기획적인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문학은 특수한 존재를 보편적 존재로 둔갑시키는 일련의 아동 담론 형성을 통하여 사회의 균질화 작업에 동참했다. 따라서 아동문학에서 발현되는 혁명적 이미지는 새롭게 발견된 근대의 아동을 사회의 요청에 따라 균질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동시 속에서 드러나는 혁명적 이미지 역시, 규격화된 아동이 재구성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동시와 혁명적 이미지’의 동조 관계를 분석하는 중심에 목일신의 동요·동시를 가지고 오고자 한다. 목일신<sup>3)</sup>은 전라남도 고흥 출신으로 1930년대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시인 중 한 명이다. 그의 동시는 많은 작곡가들에 의해 동요로 재탄생되었고 「자전거」, 「비눗방울」, 「누가누가잠자나」 등의 작품은 오늘날까지 많은 아동들에게 애창되어지고 있다.

3) 목일신은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행정리 425번지에서 5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1928년 3월 14일 고흥의 흥양보통학교를 16회로 졸업하고, 순천매산학교에 입학하였다가 1929년 4월 8일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신흥학교로 전학하였다. 이후 일본으로 유학하여 관서대학을 졸업하였고, 평생을 교직에 종사하였다. 그의 호는 은성이며, 필명으로 목옥순, 기소영, 김부암, 임일영 등을 쓰기도 하였다. 그가 주로 동시·동요를 발표한 지면은 『동아일보』, 『조선일보』, 『매일신보』, 『아이생활』이다. 작품 발표 시기를 살펴보면 1929년부터 1937년까지 활발하게 발표하였다. 1929년은 전주 신흥학교에 다니던 때로 18편을 발표하였고, 퇴학을 당한 1930년은 가장 많은 작품을 발표했던 해이다. 1930년대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였던 동시·동요작가이다. 윤이상, 안기영, 홍성유 등 당대의 유명한 작곡가들이 그의 작품에 곡을 붙였다. 목일신의 작품 편수가 정확하게 몇 편이나 되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그는 생전에 400여 편의 작품을 썼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발굴되어 전집에 실린 작품은 동요는 201편, 산문은 54편, 시와 대중가요와 신민요 등의 노랫말은 44편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동안 목일신에 관한 연구<sup>4)</sup>는 주로 ‘이동순, 이정석, 황수대’를 통해

- 4) 목일신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주로 ‘이동순, 이정석, 황수대’(가나다순)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기존의 연구들은 다음의 글들을 통해 그 축적을 확인할 수 있다.
- 이동순, 「자전거를 타고 오는 사람, 동요작가 목일신」, 『문학들』 제30집, 2012.
- \_\_\_\_\_, 「동요작가 목일신의 문학적 생애」, 『한국문학이론과비평』 제58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3.
- \_\_\_\_\_, 「광주전남 근현대 시문단의 형성사 연구2-동요, 동시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제57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4.
- 이정석, 「찌르릉! 목일신(睦一信) 동요 연구」, 『한국아동문학연구』 제20집, 한국아동문학학회, 2011.
- \_\_\_\_\_, 「목일신(睦一信) 동요연구」, 『문학춘추』 제78집, 문학춘추사, 2012.
- \_\_\_\_\_, 「1930년대 대표 동요시인 목일신의 문학 특성」, 『아동문학평론』 제39집, 아동문학평론사, 2014.
- 황수대, 「목일신 동시 연구」, 『한국아동문학연구』 제23집, 한국아동문학학회, 2012.
- \_\_\_\_\_, 「1930년대 동시 연구 : 목일신·강소천·박목월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이동순은 그의 연구들을 통하여 목일신의 문학적 생애를 추적하고 정리하여 문학사적 위치를 해명하고 있다. 항일운동가의 아들로 태어나 동요를 창작하게 된 동기를 부친의 우리말 글쓰기 교육에서 찾고 있다. 그래서 그의 동요가 민족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다고 밝히고 있다. 더불어 목일신이 어린이를 주체적인 타자로 설정하고 ‘어린이·되기’로서의 동요를 썼다고 분석한다. 그리고 그의 동요에 당대 유명한 작곡가들의 곡이 많이 붙여졌음을 밝히고, 그가 신민요와 유행가의 가사도 썼음을 밝히며 아동문학사 내에서의 그의 문학적 합당한 위치를 부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동순은 「광주·전남 근현대 시문단의 형성사 연구2」에서 광주전남의 아동문단 형성이 1920년대와 30년대 동요운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동요운동을 어린이를 항일담론의 주체로 부상시키면서 전개된 항일운동이자 문학운동으로 규정지으며 광주·전남지역 동요·동시의 제1세대 문단의 주역으로 ‘김태오, 목일신, 조종현, 정태병’을, 1950년대 제2세대 문단의 주역으로 ‘여운교, 김일로, 김신철, 고재승, 허연’의 활동을 주목했다.

이정석은 그의 연구들에서 목일신의 동요 총 98편을 표현 대상별로 분류한다. 생활중심인 ‘자전거’형 동요와 자연 중심인 ‘비누방울’형 동요, 공존 중심인 ‘누가누가 잠자나’형 동요로 나눈다. 이러한 목일신 동요의 특징으로 명량하고 건강 한 내용이 많고, 의성어와 의태어를 빈번하게 사용하며 자장가 형태의 동요가 많고, 독특한 시행 배열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드러내고 있다.

이루어졌다. 기존 연구들로 인하여 목일신의 작품들이 발굴되고, 작가의 생애가 정리되며, 그 작품세계 분석이 시작되었다는 성과를 이루었다. 본 연구자는 이렇게 축적된 연구에서 한 지점 더 나아가, 목일신의 동시가 아동들에게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사회문화적 파장을 가늠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자 한다.

본고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 대상은 『목일신전집』<sup>5)</sup>에 실려있는 목일신의 동시 201편이다. 사실 목일신이 발표한 작품은 시인이 자신의 집필노트에서 밝힌 것을 토대로 4, 5백 편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발굴되어 『목일신전집』에 정리된 작품은 동요 201편, 산문 54편, 시와 대중가요와 신민요 등의 노랫말 44편이 전부이다. 본고에서는 『목일신전집』에 수록된 동시들을 분석에 중심으로 가지고 와서, 목일신 동시에서 구현되는 혁명적 이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목일신 동시의 분명한 특징 중 하나는 작품 속 이미지가 매우 선명하고, 생동감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채로운 의성어와 의태어가 반복되어 사용되어 있고, 구체적인 이미지가 작품 속에 묘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밝고 경쾌한, 명랑하고 건강한 이미지의 분석은 기존의

---

황수대는 동요의 황금기라 불리었던 1930년대 작품 활동을 펼쳤던 목일신의 삶과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목일신의 동요가 1930년대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촉발된 ‘동요와 동시의 구별’ 논쟁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1920년대를 풍미했던 노래 중심의 정형동시의 맥을 이어가며, 밝고 건강한 동심을 담아내고 있다고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 황수대는 또 그의 학위논문에서 1930년대 한국 동시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목일신과 강소천, 그리고 박목월의 동시를 연구의 중심으로 가지고 온다. 그 중에서도 목일신을 그동안 한국 동시문학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한 시인이라고 밝히며, 목일신의 동시를 1920년대 정형동시이 틀을 유지하면서도 밝고 건강한 동심의 세계를 담아내고, 음성상징어와 대구를 활용하여 경쾌한 리듬을 조성하고, 다양한 행갈이와 연갈이를 통해 그 나름의 형식미를 추구한 데에서 목일신 동시의 의의를 밝히고 있다.

5) 목일신, 『목일신 전집』, 이동순 엮, 소명출판, 2013.

연구를 통해 밝혀진바 있다. 본 연구자는 여기에 더하여 목일신 동시의 특정한 이미지가 혁명적 이미지와 닿아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는 바디우의 “동일자의 생산은 그 자체가 동일자의 법칙 내부에 있다”는 사유체계를 빌려와서 분석한다.

근대 이후 발견된 아동은, 사회 안에서 일련의 ‘동일자’로 생산되기 위하여 끊임없는 사회화과정을 거친다. 이 때 ‘동일자의 내부에 존재하는 법칙’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 동일자의 내부에 존재하는 법칙을 만드는 데에는 ‘동시’가(혹은 아동문학이)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목일신 동시에서는 동일자 생산 법칙이 ‘미성숙한 아동으로의 인식을 촉구’하고 ‘아동의 규칙을 확산’하는 것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를 통해 목일신 동시가 ‘혁명적 이미지’를 작품 속에서 구현하고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자연물의 반복적 재현과 ‘아동-동일자’ 이미지 생산

일반적으로 목일신의 동시 중 대중에게 가장 익숙한 작품은 1932년 『아이생활』에 발표된 「자전거」이다. 사실 목일신이라는 시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도 자전거의 가사와 곡은 모두 알고 있다. 이는 목일신의 동시에 작곡가 김대현이 곡을 붙여서 더 많은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게 된 작품으로, 오늘날까지 국민동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노랫말과 당대에 발표된 목일신의 동시는 조금 달라진 양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토대는 거의 동일하다.

찌르릉 찌르릉 빗켜나세요  
자전거가 갑니다 찌르르릉

저기가는 저영감 꼬부랑영감  
어물어물 하다가는 큰일납니다.

\*\*

찌르릉 찌르릉 빗겨나셔요  
자전거가 갑니다 찌르르릉  
오불랑 꼬불랑 고개를넘어  
비탈길을 스르륵 지나갑니다.

\*\*

찌르릉 찌르릉 이자전거는  
올아버지 사오신 자전거라오  
머나먼 시골길을 돌아오실제  
간들간들 타고오는 자전거라오.

— 「자전거」(아이생활, 1932) 전문

위에 인용된 동시 「자전거」에는 아버지가 사오신 자전거를 신나게 타는 아동이 작품 속에 전면화되어 있다. 자전거를 타고 있는 현장의 생동감을 구체적인 상황으로 묘사하면서 재미있는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하지만 위의 동시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구절은 각 행의 첫 구절을 노래하고 있는 ‘찌르릉 찌르릉’이라는 의성어이다. 오늘날 불려지고 있는 ‘따르릉 따르릉’과는 다른 의성어가 구현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자전거의 벨소리를 떠올려 본다면, ‘따르릉 따르릉’보다는 ‘찌르릉 찌르릉’이 보다 실제의 소리를 더 잘 구현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사실 ‘따르릉 따르릉’이라는 의성어는, 의성어가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가능성으로 오늘날 동요 「자전거」를 아동들이 쉽게 가사를 바꾸어 부르도록 하는 일련의 확장된 문학 생산장으로 이어지게 하였다. 이는 주로, 운동회 등의 체육행사에서 많이 불리어지고있다. ‘따르릉 따르릉 전화왔어요. ○○팀이 이겼다고 전화왔어요. 아니야 아니야 그건 거짓말.

●● ‘탐이 이겼다고 전화왔어요’라는 식으로 ‘따르릉 따르릉’이 전화벨소리와도 비슷하여 쉽게 바꾸어 부르는 것으로 구체화된다. 의성어의 닭은꼴이 재미있는 변용을 일으킨다는 점이 흥미롭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사실 ‘따르릉 따르릉’과 전화벨소리를 연동시키는 행위는 대중들의 집단 창작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사회 안에서 혼용되어서 사용되는 의성어 중 하나이다. 이는 목일신의 또 다른 동시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짜르릉 짜르릉 짜르르르릉  
 전화가 왔습니다 짜르르르릉  
 밥먹다가 말고서 썩여갓지요

\*\*

네!네 여보서요 누구십닛가  
 “ . . . . . ”

네!네! 잠깐만 기다려줍소  
 우리언니 불러서 대여주엇쥬

— 「전화」(조선일보, 1933) 부분

‘따르릉 따르릉’이라는 의성어는 사실 대중들이 생각해 낸 재미있는 변용이라기보다는, 목일신의 다른 동시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이미 많은 동시 속에서, 혹은 일상속에서 사용되고 있는 관습화된 표현이다. 이렇듯 ‘주체적인 나’가, 혹은 개성넘치는 내가 생각해 낸 사유나 가치관이 사실은 일련의 습득 과정을 통해 체화되었을 가능성과 마주하게 된다. ‘따르릉’이라는 의성어를 자전거의 벨소리로 또 전화기의 벨소리로 연상하게 된 데에는 문학작품이 일련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가능성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동시 작품 안인 것이다.

따라서, 사회에서 희망하는 아동이라는 동일자를 생산해 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는 것은 ‘아동-동일자’의 틀을 규정짓는 것이다. 독일신의 동시는 이러한 역할을 매우 분명하게 수행하고 있다. 독일신의 여러 동시에서는 ‘아동-동일자’의 틀을 다양한 자연물들의 ‘어린’이미지들의 반복을 통하여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이미지의 반복은 일정한 이미지의 연상을 축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동일자’의 이미지를 형성하게 한다.

은하수/강물가에/어린별들이//  
 옹기종기/모혀안저/무엇을하나//  
 버레까지/잠자는/깊은이밤에//  
 수군수군/모혀안저/무슨말하나//  
 캄캄하고/무서운/깊은이밤에//  
 말엽시/가만가만/숫곱질하나//

— 「어린별」(아이생활, 1931) 전문

위에서 인용된 「어린별」에서는 저녁 하늘의 별들에게서 어린이미지를 연상하게 한다. 어린별들이 위치하고 있는 공간은 어둡고 캄캄한 밤하늘이다. 모두가 잠자는 깊은 밤에 함께 모여 앉아 있는 어린별을 바라보며 ‘무엇을 하나’, ‘무슨말 하나’라는 궁금증을 부여하게 된다. 그리고 어린별에게 부여되었던 호기심은 동시의 마지막 시행에서 ‘캄캄하고/무서운/깊은이밤에//말엽시/가만가만숫곱질하나’라는 마지막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는 ‘깊은밤-밝은아침’, ‘말엽시-말하다’라는 대칭어를 연상시킨다. 그리고 앞으로 성장하여 제 역할을 하기 전 단계에 위치해 있는 미성숙한 이미지를 어린별의 묘사를 통하여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숫곱질’ 역시 어른들의 일상을 모방하는 행위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는 미성숙한 아동의 모습을 인식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어린이미

지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별에서 어린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것은 또 다른 동시 「반짝반짝」, 「달과 별」, 「누가 누가 잠자나」, 「별」에서도 발견되어 진다. 그리고 어린별의 이미지 외에도 어린동물을 동시 속에 등장시키며, 어린이미지의 또 다른 형상화를 꾀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문풍지 우루릉  
 잠안오는밤  
 보실보실 이밤엔  
 눈이옵니다  
 뒷동산 숲속에  
 어린산토끼  
 눈오는 이밤엔  
 어디서자나

— 「눈오는밤」(동아일보, 1934.1.21) 부분

인용된 동시 「눈오는밤」에서는 어린산토끼가 어린이미지의 형상화로 등장하고 있다. 동시 속에 등장하는 어린산토끼는 ‘보실보실’ 눈이 오는 밤의 공간에 위치해 있다. 아동 화자는 잠이 오지 않은 밤에 밖에서 떨고 있을 토끼를 걱정하고 있다. 이 때 아동 화자의 목소리를 따라가다보면, 어느새 아동과 어린산토끼를 동일한 선상에 놓게 된다. 그리고 아동 화자 역시 눈이 오는 어두운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여기에서 또 다른 미성숙한 아동의 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어린산토끼를 걱정하고 있는 아동 역시 아직은 보호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아직은 미성숙한 존재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를 어린산토끼에 대한 걱정때문이라고 제시하며 아동은 이처럼 순수해야 한다는 의미망을 ‘아동-동일자’ 생성의

를 안으로 가져오게 된다. 어린동물들을 어린이미지를 호명하는 일련의 과정에는 ‘어린이다움’이 생성시키는 과정과도 연결되는 것이다. 물론 동시를 읽고 노래하는 아동은 이와 같은 정체성이 형성이 주체적인 사유의 결과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 또한, 이처럼 직접적으로 화자가 ‘어린 무엇’을 호명하지 않더라도, 사유의 중심에 ‘어린이미지’를 가져다 놓기도 한다. 다음의 동시를 살펴보자.

오양간엔 음메음메 어린송아지  
 젓달라고 음메음메 우는송아지  
 배고프고 엄마그려 우름운단다  
 어미소만 기다리며 우름운단다.

\*\*

하로종일 일만하는 우리암소야  
 어서어서 일다하고 집에돌아와  
 어린새끼 정다웁게 안어주어라  
 송아지의 주린배를 채워주어라.

— 「소야! 소야!」(아이생활, 1935) 부분

위에 인용한 동시 「소야! 소야!」에서 화자는 자신의 집에서 기르는 암소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하지만 울고 있는 어린송아지를 동시의 전반부에 먼저 제시하며, 엄마를 애타게 기다리는 어린송아지에게 시선을 가게 한다. 암소에게 말을 걸고 있지만, 동시를 읽는 아동에게는 어린송아지가 사유의 전면에 배치가 되는 것이다. 동시 속에서 어린송아지가 ‘음메음메’ 울며 엄마를 기다리는 이유는 배가 고프기 때문이다. 주린배를 채우는 행위는 성장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목일신 동시의 목적 의식이 우회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성장은 자연스럽게 미성숙한 존재와 성숙한 존재라는 이분법적 사유를 전제하게 한다. 위의 동시

에서는 ‘어린송아지가 미성숙한 존재’로 ‘어미소가 성숙한 존재’로 드러나고 있는데, 어린송아지에게 향해있는 화자의 마음쓰임에서 아동의 성장을 걱정하는 시인의 흔적을 유추해낼 수 있다. 이 외에도 어린 동물들의 모습은 「어린새」, 「겨울의산새」, 「산새」 등을 통하여 다양하게 형상화되고 있다.

사실 동시 속에서 화자가 관심을 주는 모든 행위의 목적은 ‘아동-동일자’가 바르게 성장하게 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작가의 목적의식은 아래에 인용된 동시 속에서도 확인하고 있다.

잔디위에 오슬보슬  
 은실같은 이슬비  
 잠지는씩 놀랄가봐  
 소리없이 내리네  
 어린새씩 눈뜨라고  
 보슬보슬 내리네  
 — 「보슬비」(새벗, 1952) 부분

위의 동시 「보슬비」에서는 은실같은 이슬비가 잔디 위에 조심스럽게 내리고 있다. 이슬비가 내리는 이유는 앞으로 눈을 뜰 잠자는 새를 위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아동-동일자’의 틀을 제시함과 동시에 ‘아동-동일자’가 바르게 성장하기를 기원하는 시인의 목적 의식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다. 다시 말해, 잠자고 있는 어린 새를 위해 은실같은 비를 내리고 있는 것이 바로 목일신 동시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다.

위의 작품들을 통하여 목일신의 동시에서 ‘어린별, 어린동물, 어린새’ 등의 모습으로 어린이미지들이 동시의 전면에서 반복하여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위에서 형상화되고 있는 다양한 이미지들은 아

직은 미성숙한 아동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미성숙한 아동의 이미지는 아동을 앞으로 성장할 존재로, 아직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인식하게 한다.

### 3. 일상의 명랑성 묘사와 아동의 내부 규칙 확산

지금까지 목일신의 동시 속에서는 ‘아동-동일자’ 틀을 규정짓기 위하여, 어린이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아동의 모습을 형상화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린이 이미지의 형상화는 주로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 아동이 지니고 있어야 할 것 중에 하나로 ‘자연’과 같은 마음의 전제가 선행된 것이다. 이는 동일자의 생산 법칙 가운데 하나로 자연과 같은 마음을 습득할 것을 무의식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아동-동일자’ 틀은 미성숙한 아동을 규정하는 것과 동시에, 일련의 동일자 규칙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아래에 인용된 동시 「산새」를 살펴보자.

산에사는산새는 가여운새는  
비비배배노래하며 어데로가나

가도가도꽃엮는 김흔산속에  
외로히울다울다 쉬고잇겟지

산에사는산새는 처량한새는  
어둡캄캄이밤엔 어데서자나

느러진어린날개 고단하여서

가다가다습해서 자고잇겟지  
 — 「산새」(동아일보, 1930) 전문

위에 인용된 동시에는 어린이미지의 구체화로 ‘산새’가 전면화되어 있다. ‘어리다’라는 명확한 수식어가 동시의 후반부 ‘느러진어린날개’에만 명시되어 있지만, 동시 전반에 걸쳐 형상화된 ‘가엽고 외로운 산새’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아동-동일자’의 틀과 동일하게 인식하게 한다. 이는 보호가 필요한 미성숙한 아동과의 유사성이 확장되어 동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산새에 중첩되어 있는 사유는 ‘자고잇겟지’에서 마무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사실 목일신의 동시에는 유독 자장가나 자고 있는 이미지가 많이 구현된 동시들이 많이 있다. 이는 ‘잔다’라는 의미망에 전제되어 있는 일련의 유추 과정을 통해 그 이유를 분석해 볼 수 있다.

동쪽하날붉으래  
 밝아오면은  
 참새들이 썹썹썹  
 날새였다고  
 웅기중기나무에  
 모혀들안저  
 날새엿소날새여  
 일을하시요

\*\*

서쪽하날붉으래  
 날이저물면  
 참새들이 썹썹썹  
 해가젓다고  
 오골오골습속에

오혀들안저  
해가젓소해가저  
편히쉬시오  
— 「참새」, (동아일보, 1930) 전문

위에 인용한 동시 「참새」는 동아일보 신춘현상에 당선 작품이다. 위의 작품에는 ‘씩씩씩’ 노래하는 참새들이 동시의 중심에 있다. 참새들은 ‘동쪽하날붉으래’ 해가 뜨면 날이 새었으니 일을 하라고 노래를 하고, ‘서쪽하날붉으래’ 해가 지면은 날이 졌으니 일을 그만하고 들어가 편히 쉬라고 노래한다. 이는 다시 생각해 보면, ‘잔다’라는 행위가 ‘일을 한다’라는 행위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자장가를 듣고 잠을 자는 아동은 일을 할 수 있는 내일을 위해 준비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유추해 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아동이 준비해야 할 것은 주로 아동보다 조금 성장한 누나나 오빠의 모습을 동시에 구현하며 아동들에게 전달되어 진다.

글읽는 어린누나  
학교갓다와  
왼종일 가가거겨  
글만읽어요

\*

쌀-간 토수끼고  
코스물흘려도  
학교에 선생님께  
칭찬만받네  
— 「글읽는누나」(조선일보, 1930) 전문

위에서 인용된 동시 「글읽는누나」에 등장하는 누나 역시 아직 어린

존재이다. 여전히 콧물을 흘리는 존재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다녀와서 열심히 글자 공부를 하며 학교 선생님께 칭찬을 받는 누나의 모습은 매우 정겹고 대견하게 느껴진다. 명랑성을 앞세운 일상을 묘사하면서 동시에 아동이 습득해야 할 규칙을 누나의 모범적인 생활 제시를 통해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아동은 자신도 어리지만 누나 처럼,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것을 체화시키게 되고, 이는 ‘아동-동일자’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목일신의 동시는 아동보다 조금 더 성장한 누나나 오빠를 동시의 전면에 내세운 작품들을 통하여, ‘아동-동일자’ 습득하게 될 규칙을 전달한다.

양복쟁이 우리옴바 나는조와요  
 멀리멀리 공부하다 도라오시면  
 고흔선물 만히만히 갖다주어요

키장다리 우리옴바 나는조와요  
 과자사고 사탕사고 노리개사서  
 내동무까지 만히만히 사다주어요

영어하는 우리옴바 나는조와요  
 나도나도 배웠지요 에이씨씨디  
 남몰르는 영국말을 나는아리요

— 「우리옴바」(조선일보, 1930) 전문

위에 인용된 동시의 중심에는 ‘우리옴바’가 있다. 화자가 천진난만하게, 명랑하게 소개하고 있는 ‘우리옴바’는 화자의 눈으로 보기에 매우 긍정적인 요소를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는 인물이다. 먼 길을 다녀올 때 예면 화자에게 ‘고은선물’을 많이 가져다주는 인물이고, 자신의 친구들에게까지 ‘과자, 사탕, 노리개 등’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인물이다. 그

러다보니 이러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전면화된 인물의 행위는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는 자연히 아동이 세계의 규칙을 형성하는 데 모범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양복을 입고 키가 큰 ‘우리옴바’가 먼 곳에서 공부를 하고 왔다는 것, 특히 영어를 한다는 것은 아동이 앞으로의 성장의 목표점을 무의식적으로 설정하도록 만든다. 비록 위의 동시에는 ‘아동이 어떻게 해야한다’에 관한 규범이 전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옴바’에 관한 구체적인 이미지를 제시하며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전제를 자연스럽게 내면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할아버지심부름은 담배심부름  
 앞집의쇠돌이네 가게에가서  
 담배사다드리면 고만이지요

\*

어머니심부름은 외가에가기  
 맛조흔것가져가고 날러다주고  
 주고받고하면은 고만이지요

\*

형님의심부름은 실흔심부름  
 머나먼길보내여 물건사오기  
 끝나는심부름은 형님심부름

\*

누님의심부름은 꺾속심부름  
 날몰래숙은숙은 짓거리논말  
 오날밤옥희다려 놀러오라쵸

— 「심부름」(조선일보, 1930) 전문

위에 인용된 동시 「심부름」에는 심부름을 하고 있는 아동의 재미있는

상황들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명랑성을 앞세운 일상 묘사가 눈에 띄는 작품이다. 할아버지의 담배 심부름과 어머니의 외갓댁 심부름을 하는 아동을 전달하며, ‘아동은 어른들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아동은 심부름을 즐겁게 해야한다’는 내부법칙을 습득하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형님의 심부름은 ‘실흔심부름’이라고 표현하고, 누님의 심부름은 ‘곶속심부름’이라고 비유하면서 아동다운 천진함을 무의식적으로 습득하도록 하는 내부규칙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어린이미지 제시로 구체화된 ‘아동-동일자’의 틀 형상화가 어떻게 내부법칙의 전달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제시되어 있었던 자연물들은 성장을 위하여 일련의 내부 규칙을 따르고 있었다. 특히, 위의 동시에서는 해가 뜨면 열심히 일하기 위하여 잠을 자야한다는 참새의 비유를 통해, 성장을 위해 잠재적인 노력을 해야하는 ‘아동-동일자’의 내부규칙을 전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아동-동일자’의 내부법칙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상의 명랑성을 묘사함과 동시에 아동보다 조금 더 성장한 ‘누나, 오빠, 형님 등’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하면서 아동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내부법칙을 습득할 수 있도록 작용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 4. 맺음말

알랭 바디우의 “동일자의 생산은 그 자체가 동일자의 법칙 내부에 있다”는 주장은 아동문학의 근대성과 아동문학 속에 내재되어 있는 혁명적 이미지를 다시 확인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사실 사회 체제가 지향하는 구성원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문학은 매우 유효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특히, 아동문학은 미성숙한 아동을 사회가 희망하는 성인으로

생산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 중에서도 동요·동시는 아동들이 스스로 (혹은 다양한 교육현장과 가정의 성인들에 의하여) 끊임없이 오감을 자극하며 반복되었고, 자신들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알랭 바디우의 사유를 전제로, 목일신 동시의 다시 읽기를 시도하였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일상의 명랑성을 노래하는 목일신 동시에는 혁명적 이미지가 내재되어 있었다.

목일신의 동시 역시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동일자-아동’을 생산하기 위하여 ‘동일자 내부·법칙’을 형성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생생한 현장의 이미지를 다양한 의성어·의태어의 반복과 비유적 표현으로 동시 속에 구현해내면서 거부감 없이 동시를 받아들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동시들에 작곡가들에 의해 동요로 재배열되면서 더 많은 아동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매체로 발달하였다.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자전거」, 「비눗방울」, 「누가누가잡자나」 등이 그 예이다.

먼저, 목일신의 동시 속에서 ‘아동-동일자’의 이미지 생산은 다양한 자연물의 반복적 재현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 때 작품의 중심에는 ‘어린 산토끼, 어린 송아지, 어린 새싹, 어린 별 등’의 어린 이미지의 자연물, 동식물이 소환된다. 목일신의 동시는 어린 동식물들의 미성숙한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보여주며 앞으로 성장해야할 존재로서의 아동의 이미지를 재인식하게 만든다.

다음으로, 목일신 동시에서는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의 내부 규칙이 발현된다. 일상의 명랑함을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동시에는 사회에서 아동에게 요구하는 ‘웃어른을 공경한다, 열심히 공부해야한다 등’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이 포함되어있다. 특히, 작품 속에 아동의 성장에 모범적 기준이 될 ‘누나, 오빠 등’의 행동을 제시하여 동일자의 내부 규칙을 습득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은, 동일자의 법칙 내부에서 동일

자를 생산한다는 바디우의 사유가 문학 작품으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지점이다. 다시 말해, 목일신의 동시는 어린이미지의 반복을 통해 구현된 ‘아동-동일자’에게 일련의 동일자 규칙을 생산하도록 자극하는데, 이는 아동보다 조금 더 나이를 먹은, 일정한 성장을 이룬 언니나 오빠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미화시키며 구체화되었다. 아동들은 동시를 접하고, 노래를 부르며 나도 모르게 동일자 규칙을 습득하게 되고, 이는 아동의 가치관을 형성시키는 데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목일신의 동시에는 나의 가치관이 사실은 일정의 문학이라는 제도 혹은 도구를 통하여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체로서의 나’가 사유하고 형성했다고 믿게 만드는 ‘혁명적 이미지’의 힘이 숨어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미성숙한 아동의 인식을 촉구하여 일련의 ‘동일자-아동’을 생산해내고, 사회가 희망하는 아동의 성장을 전제한 ‘아동의 규칙을 확산시키는’ 데에 일조한 목일신의 동시는 분명 ‘혁명적 이미지’를 구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목일신의 동시만이 ‘혁명적 이미지’를 구현한다는 다른 동시와의 변별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목일신 동시 이전과 이후로 동시의 ‘혁명적 이미지’ 구현의 변화 양상을 뚜렷하게 구분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사실 아동에게 특정한 교훈을 전달해 주고자 하는 일련의 아동문학 모두 혁명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목일신의 작품이 다양한 아동의 입을 통해서 구전되고 확산되는 동안, 동시의 혁명적 이미지를 일상화시키는 데에 분명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또한 다른 동시 속에서 구현되고 있는 혁명적 이미지를 살펴 볼 수 있는 데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기본자료

목일신. 『목일신 전집』. 이동순 엮. 소명출판. 2013.

### 논문 및 단행본

이동순. 「자전거를 타고 오는 사람, 동요작가 목일신」. 『문학들』 제30집. 2012.

\_\_\_\_\_. 「동요작가 목일신의 문학적 생애」. 『한국문학이론과비평』 제58집. 한국  
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3.

\_\_\_\_\_. 「광주전남 근현대 시문단의 형성사 연구2-동요, 동시를 중심으로」. 『현  
대문학이론연구』 제57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4.

이정석. 「찌르릉! 목일신(睦一信) 동요 연구」. 『한국아동문학연구』 제20집. 한국  
아동문학학회. 2011.

\_\_\_\_\_. 「목일신(睦一信) 동요연구」. 『문학춘추』 제78집. 문학춘추사. 2012.

\_\_\_\_\_. 「1930년대 대표 동요시인 목일신의 문학 특성」. 『아동문학평론』 제39집.  
아동문학평론사. 2014.

황수대. 「목일신 동시 연구」. 『한국아동문학연구』 제23집. 한국아동문학학회.  
2012.

\_\_\_\_\_. 「1930년대 동시 연구 : 목일신·강소천·박목월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가라타니 고진.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박유하 역. 도서출판b. 2004.

알랭 바디우. 『사도바울·‘제국’에 맞서는 보편주의 윤리를 찾아서』. 현성환 역.  
새물결. 2008.

필립 아리에스. 『아동의 탄생』. 문지영 역. 새물결. 2003.

이 논문은 2014년 11월 15일에 투고되어 2014년 12월 3일 심사 완료하였으며  
2014년 12월 8일에 게재 확정되었음.

<국문초록>

목일신 동시의 혁명적 이미지 고찰

정 다 운

근대에 발견된 ‘아동’은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일정한 교육 과정을 겪게 된다. 여기에 아동문학은 ‘학교’라는 공적인 공간과 ‘가정’이라는 사적인 공간 모두를 넘나들며, 아동의 교육 과정에 관여하게 된다. 특히, 동시는 말하고 듣는 등의 직접적인 오감 자극을 통해 아동의 인식과 사고 판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문학 작품을 통한 간접적인 경험이 직접적인 사고 판단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아동문학에 내재되어있는 혁명적 이미지를 발견하게 된다. 혁명이란 기존에 공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사고와 제도를 일순간 전복시키는 힘이다. 혁명의 힘은 단순히 이전의 사회 질서를 전복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새롭게 제시된 사회적 규칙을 일상화시키는 힘으로 이어지게 된다. 근대 이후 발견된 아동은 분명 이전의 시대에는 없었던 혁명적 존재이다. 이러한 혁명적 존재를 일상화시키는 데에는 일정한 도구가 필요했는데, 아동문학에서 발견된 혁명의 힘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동문학은 특수한 존재를 보편적 존재로 둔갑시키는 일련의 아동 담론 형성을 통하여 사회의 균질화 작업에 동참했다. 따라서 아동문학에서 발견되는 혁명적 이미지는 새롭게 발견된 근대의 아동을 사회의 요청에 따라 균질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동시 속에서 드러나는 혁명적 이미지 역시, 규격화된 아동이 재구성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알랭 바디우의 “동일자의 생산은 그 자체가 동일자의 법칙 내부에 있다”는 사유를 전제로, 목일신 동시의 다시 읽기를

시도하고자 한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일상의 명랑성을 노래하는 목일신 동시에는 혁명적 이미지가 내재되어 있다. 이는 자연을 통해 ‘아동-동일자’의 이미지를 생산해 내고, 일상 묘사를 통한 내부의 규칙을 생산하는 것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먼저, 목일신의 동시 속에서 ‘아동-동일자’의 이미지 생산은 다양한 자연물의 반복적 재현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 때 작품의 중심에는 ‘어린 산토끼, 어린 송아지, 어린 새싹, 어린 별 등’의 어린 이미지의 자연물, 동식물이 소환된다. 목일신의 동시는 어린 동식물들의 미성숙한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보여주며 앞으로 성장해야 할 존재로서의 아동의 이미지를 재인식하게 만든다.

다음으로, 목일신 동시에서는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의 내부 규칙이 발현된다. 일상의 명랑함을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동시에는 사회에서 아동에게 요구하는 ‘웃어른을 공경한다, 열심히 공부해야한다 등’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이 포함되어있다. 특히, 작품 속에 아동의 성장에 모범적 기준이 될 ‘누나, 오빠 등’의 행동을 제시하여 동일자의 내부 규칙을 습득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은, 동일자의 법칙 내부에서 동일자를 생산한다는 바디우의 사유가 문학 작품으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지점이다.

주제어: 목일신, 동시, 알랭바디우, 혁명적 이미지

<Abstract>

## Contemplation of the Revolutionary Image on Children's Poem of Mok Il-shin

Jeong, Da-un

The 'Child', found in modern times, has been going through the educational process to become a member of society. In this process, children's literature influences on both public space 'school' and private space 'home'. A children's poem, especially, effects on child's recognition, thought and judgment by the direct five senses stimulation. The indirect influence of literary work could be the direct standard to think and judge.

At this point, the revolutionary image which is inherent in children's literature is found out. Revolution is the power which can overthrow the firmly settled thought and system in a moment. The power of the revolution is not only focused on overthrowing, but related to routinize the newly proposed social regulation. It is same in the children's literature. The children who are found in modern time are a revolutionary existence first ever. Something is needed to make this revolutionary existence usual, and this is the reason how the children's literature spread out and developed. A series of homogenization tasks is necessary to make this unusual being to common thing. In other word, revolutionary image in children's poem is the reconstitution process of children.

This study premises the thought of Alain Badiou, "Production of the same person is in the same vein with the identical law itself" and tries to read poems of Mok Il-shin again. In his works, the revolutionary images are implied. It

generates 'child-identical person' and shapes up with producing internal rule.

In the works, image production of 'child-identical person' is accompanied by the repetitive reappearance of various natural objects. Images of young nature, animal and plant like little hare, calf, sprout and star are used and it makes reader has a new understanding about the children as an immature and exist who need to be grown up.

There is an internal law aimed at the growth of children in a children's poem of the Mok Il - shin. It includes basic social requirements like, "respect elders, and study hard ". Particularly, it is suggested the model big sister and brother, and they are the exemplary standard for the growth of children. And it is the point that theory of Alain Badiou, the same person is produced in the identical law, is crystallized in literature.

**Key words:** Mok Il-shin, Children's poem, Alain Badiou, Revolutionary Image